

退溪의 朱子學 수용과 그 특질**

友枝龍太郎*

I

근년 한국에 퇴계학연구원이 설립되고, 또한 일본에서도 이퇴계연구회가 발족했지만, 그와 함께 퇴계사상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인사가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연구자는 질과 양이 모두 타국을 능가하고, 퇴계학보의 刊頒도 29집에 이르러 괄목해서 이를 볼만한 데가 있다. 이번에 동연구원에서 退溪學研究論巧提要를 편간하여 학계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기획이 있어, 李東俊 이사장은 나에게 위촉하여 서문의 집필을 요구하였다. 淺學非才라서 본시 그 소임을 다할 수 없지만, 전년에 방한했을 즈음, 퇴계의 사상형성의 과정을 구명할 것을 同氏에게 약속하고, 아직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있고 해서, 이 서문을 핑계삼아서 퇴계의 주자학 수용의 양상을 개관하고 퇴계학의 특질을 밝혀보려고 한다.

II

퇴계가 쓴 글을 읽고 있으면, 나는 언제나 마음이 가라앉음을 느끼게

* 전 廣島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30호(1981) 게재논문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오직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르면서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퇴계는 어릴 때부터 勤直 순수했다. 이웃집 노인에게 천자문을 배울 때, 洗面 櫛髮하여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전일에 배운 곳을 默誦한 후에 집을 나섰다는 것은 그의 勤直함을 나타내고 있고, 형이 상처를 입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그의 심정의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12세 때 숙부 松齋公에게서 논어를 배우고, 孝弟章에 이르러 『人之道 當如此矣』라고 말하고, 『事之是者是理乎』라고 물었다는 일화 언저리에는 후년에 그가 주자학의 대가가 된 요지가 엿보이고 있다.

또한 15세 때 石蟹詩에서

負石穿沙自有家 前行卻走足偏多 生涯一掬山泉裏 不問江湖水幾何 (退全三『續集1』15면 상)

라고 읊은 것은 그의 無欲 恬淡함을 나타내고, 18세때 詠野塘詩에서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 (退全四『言行通錄六 年譜상』14면 상)

라고 읊은 것은 그의 寂靜境에의 사모를 나타내고 19세때 詠懷詩에서

獨愛林廬萬卷書 一般心事十年餘 邇來似與源頭會 都把吾心看太虛 (同上)

라고 읊은 것은 존재의 근원의 탐구가 주체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體認 되어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李德弘錄에서는 퇴계가 性理大全 首尾 2권을 얻은 것을 19세條에 실어서 『心悅而眼開 玩熟蓋久 漸見意味 似得其門路』(退全四『言行通錄二』23면 하)라고 기록하고, 또한 그 前條에서 『及得太極圖說而讀之 則渙然豁然, 而造化之源 人物之本 已瞭然

於心目之間矣』(同上)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무렵에 퇴계의 體認 자각이 깊어져 갔다는 것은 확실하다. 좌우간 퇴계 若年の 경향은 현저하게 주체적이었다고 말해서 좋을 것이다.

III

퇴계가 若年에 그것을 얻어서 일생동안 尊信한 것에 心經附註가 있다. 이것을 얻은 연대에 관해서 퇴계 자신이 66세 때의 心經後論에서 『滉少時 遊學漢中 始見此書於逆旅 而求得之』(日本刻版 李全下 482면 하)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만, 柳西厓撰의 연보에서는, 이것을 23歲條에 실었고(退全四 『言行通錄六 年譜上』 114면 하), 李德弘錄(同上 『言行通錄二』 23면 하) 및 柳西厓撰의 연보의 頭註(退全三所收 『同年譜』 577면 상)에서는, 이것을 33歲條에 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다 하건, 퇴계가 心經後論을 존중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가 51세 때 『閒居次趙士敬·具景端…諸人唱酬韻 14수』의 제9수에서

文公平昔警門牆 主敬研幾進室堂 若事眞經與程註 指南應不嘆亡羊 (退全一 『文集二』 75면 하)

라고 읊은 것은, 그 尊信의 한 증거가 된다. 心經은 眞西山의 編著고, 冒頭에 大禹謨의 『人心惟危 道心惟微 云云』이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나아가 書·詩·易·論·孟·學·庸·禮記 樂記·周·程·范 諸子の 말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주자의 敬齋箴·求放心齋銘·尊德性齋銘을 가지고 끝난 저술이요, 附註는 程敏政의 述作이고, 송학에 있어서의 心性情의 이론을 各條 밑에 수록하여 주로 삼은 저술이다. 퇴계가 일생동안 이것을 尊信했다는 것은 그의 주자학 수용이, 무엇보다도 그 주체적 심학적 측면을 중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퇴계가 精魂을 경주해서 읽은 책에는 주자문집이 있다. 퇴계는 43세때 이 해에 조선에서 재간된 것을 입수하여 그후 49세 이래 歸山間居에 즈음하여 이것을 정독하고, 특히 그 서한 부분에 着目하여 주자서절요를 완성하고, 그 서문을 쓴것이 58세 때의 일이다. 주자의 서한 가운데서 그 요긴한 것을 추려내어 遺漏된 바가 없고, 그 가운데에는 문자의 전도를 바로잡은 것도 있으며, 出藍之榮을 얻은 編著가 되었다. 그가 그 서문에서 주자를 평하여

心術隱微之間 無所容其纖惡 義理窮索之際 獨先照於毫差 規模廣大 心法嚴密 戰兢臨履 無時或息 懲窒遷改 如恐不及 剛健篤實 輝光日新其德 (退全二 『文集42』 349면 상)

이라고 말한 것은, 뒤집어서 보면, 퇴계 그 분의 體認 실천이기도 했다. 그가 61세 때 示諸友詩에서

臥雲庵裏存心法 觀善齋中日用功 要識講明歸宿處 請將踐履驗吾躬 (退全一 『文集3』 116면 상)

이라고 읊은 것은, 그가 朱子文集이나 朱子語類를 읽고, 이것을 어떻게 體認實踐의 장에서 포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6세 때 南時甫를 위해서 쓴 靜齋記에서

誠能因朱子之訓 參以篋槩之書 而日新其功 則靜敬相須 本末兼舉 主靜而不偏於靜 (退全二 『文集42』 359면 상)

이라고 설명한 것은 주자문집과 程敏政의 心經附註의 尊信 이외의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延平答問을 중시했다. 이것을 처음으로 입수한 것은 52세 때며, 그 後語는 53세 때, 그 跋은 54세 때 쓰여진 것이다.

그가 後語에서

吾學與禪學 似同而實異之端 至是可知. 而涵養本原, 似若得其用力之地矣.
(退全二 『文集43』 378면 하)

라고 말하고, 또한 跋에서

凡晦菴之折衷羣書 大明斯道於天下者 皆自先生發之 而其授受心法之妙 備
載此書 (同上 387면 하)

라고 말한 것을 보면, 퇴계가 이 책을 本原涵養에 즈음하여 用力해야 할 자리로 삼고, 心法授受의 妙處를 푼 것이라 보고 있음이 판명된다. 물론 이 後語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四書集注或問等を 일찍이 읽고 있었지만, 52세때 延平答問을 손에 넣고, 퇴계의 학문이 희노애락 未發의 기상의 體認에 관하여, 한층 더 그 깊이를 더해갔다는 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요컨대 心經附註·朱子文集·延平答問의 획득이라는 그의 習學道程을 더듬어 보면 그가 무엇보다도 주자학의 심학적 측면을 강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 일본 幕末의 선각자 橫井小楠(1809~69)이 退溪自省錄 冒頭의 南時甫에게 보내는 서한에 있는 말,

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 一切置之度外 不以累於靈台 既辦得此
心 則所患 蓋已六七分體歇矣 (日本刻版 李全下 321면 하)

이라고 인용하여, 門弟子에게 주고, 『學者當先立本領』(橫井小楠遺稿 723~4면)이라 하고 또한 『本領合點了解의 工夫』(同上 944~5면)를 역설한 것은 퇴계학의 핵심을 포착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退溪自省錄의 編序는 58세 때의 일이다.

IV

퇴계가 심경부주에 마음을 경주하고 形氣의 私에서 생기는 人心과 性命의 正에 연원하는 道心을, 뚜렷이 식별 體認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53세 때 鄭秋巒(1509~61)의 天命圖를 개정함에 임하여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를 당초부터 默(識·體)認하고 있었던 것도 까닭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 후 59세 이래로 계속된 奇高峯(1527~72)과의 四七論辯에서, 혹은 『四端之發純理 故無不害 七情之發兼氣 故有善惡』(退溪全一 『文集16』 402면 상) 이라고 정정하고 또한 朱子語類에 의하여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同上 407면 하)이라고 정정하지만, 그 기본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고봉은 이에 대해서 사단칠정이 모두 칠정이며, 칠정가운데서 선한 것이 사단이라고 하고, 人心道心を 섞지 않고 이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퇴계는 고봉의 說에서 수용해야 할 것을 수용하여 60세 때의 서한에서, 사단은 『理發而氣隨之』이고, 칠정은 『氣發而理乘之』라 하고 모두 理와 氣가 변증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전자는 理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고, 후자는 氣를 주로 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同上 419면 하).

이 논변은 퇴계가 66세, 고봉이 40세 때 일단 兩人 합일의 장에 도달한다. 이리하여 퇴계는 68세 당시 성학십도 중의 『心統性情圖』의 中圖에서, 사단칠정을 모두 포함시켜서 『就善惡幾 言善一邊』이라 하여 純粹性情을 정립하고, 그 下圖에서 사단을 『理發而氣隨之』라 하며, 칠정을 『氣發而理乘之』라 하고 사단의 경우는 물론 善이지만, 理의 발동이 수행되지 않고 氣에 은폐되면 不善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칠정의 경우도 善은 있지만, 氣의 발동이 節에 맞지 않고 그 理를 멸할 때는 惡이 된다고 설명하기에 이르고 있다(日本刻版 李全下, 25면 상하). 이것은 고봉의 說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인 것이고, 四七論辯은 퇴계의 설을 점점 더 정밀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단칠정론은 중국의 성리학사상에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곧 퇴계의 주자학적 심학의 전개였던 것이다.

V

퇴계의 理氣論이 명료하게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53세때 鄭秋巒의 天命圖 및 그 圖說의 개정에 즈음해서였다.

氣 理 妙

그는 秋巒의 舊圖가 天命이었던 것을 天命이라고 개정하고, 자기의

氣 氣 凝

新圖와 周子の 태극도를 비교하여 그 後敍에서, 周子の 태극도는 태극에서 시작되어 『關理氣之本源 發造化之機妙』이기 때문에, 태극 음양 오행 氣化 形化라는 5단계의 圖示를 필요로 하지만, 이 天命圖는 理氣妙凝에서 시작되어 『因人物之稟賦 原理氣之化生』이기 때문에, 하나의 커다란 圓圈으로 圖示했다고 설명하고 있다(日本刻版 李全下 238면 상). 이것은 朱子の 태극도가 流出論 발생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퇴계의 天命新圖가 理氣·妙應·對待의 변증론이고, 그것은 다름아닌 존재의 구조론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天命圖說에서는,

天地之間, 有理有氣. 纔有理, 便有氣映焉. 纔有氣, 便有理在焉. 理爲氣之帥, 氣爲理之卒, 以遂天地之功. …理外無氣, 氣外無理, 固不可斯須離也. 而其分別亦不可相紊而無其別也. (同上 231면 상 하)

라고 설명하고, 理와 氣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동시존재며 선후라고는 없지만, 理와 氣 사이에는 가치상의 帥와 「卒」이라는 우열선후가 있으니 양자 사이의 분별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다. 이것은 명백히 朱子の 理氣 不離 不雜의 변증론을 계승한 것이요, 특히 理氣 不雜의 측면을 중시한 퇴계는 理氣 妙凝의 연계에서 理와 氣를 변별하여, 사단

칠정을 理와 氣로 分說하고, 前述한 것 같이 『理發而氣隨之』 『氣發而理乘之』라는 理發氣隨 氣發理乘 二途의 說을 正립했다. 그리고 또한 이 설은 理氣論에 返照되어 61세 때 鄭子中에 보낸 書翰 別紙의 『理動則氣隨而生, 氣動則理隨而顯』(退全二 『文集25』 18면 상)이라는 설이 되었다. 理와 氣는 確實히 交互媒介의 관계에 있고, 理氣一物은 아니다. 따라서 퇴계는 64세 당시의 非理氣爲一物辯證에서, 程明道の 『器亦道道亦器』에 관하여, 이것은 『器卽是道 道卽是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또한 朱子가 劉叔文에게 보낸 서한 가운데 있는 『理氣決是二物』과 『性雖方在氣中 然氣自氣 性自性 亦自不相夾雜 不當以氣之精者爲性 性之粗者爲氣』를 인용해서 羅整庵 徐花潭 李蓮坊이 理와 氣를 一物이라 보는 설을 駁하고 있다(退全二 『文集41』 331면 상하). 이리하여 퇴계의 理動說은, 70세 때 고봉에게 보낸 서한에서, 격물치지설 가운데 있는 『物格』에 관하여, 그것은 物理의 來格 到來라고 설명하여,

及其言物格也, 則豈不可謂物理之極處, 隨吾所窮 而無不到乎. 是知無情意造作者, 此理本然之體也. 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 此理至神之用也(退全1/ 『文集18』 465면 상)

라고 단정해서, 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淨潔空闊의 理光의 도래를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퇴계가 道體를 體貼하는 妙가 여기에 이르러서 그 극치에 달하고 있다 하겠다.

VI

요컨대 퇴계학의 특질은

1. 주자학을 수용하되 그 주체적 體認의 측면을 주로 삼았기에 현저하게 心學的이었다는 것.

2. 따라서 性情論에 있어서는,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었던 精詳謹密한 사칠론을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
3. 理氣論에 있어서는, 理氣 妙凝 不離 不雜의 변증론을 전개하여 주자학을 심화시키고 특히 理氣 不雜의 측면을 강조해서 理動說을 정립했다는 것.

이라는 세가지 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은 퇴계의 理氣論 性情論이 그가 退隱을 결의한 49세 이후에 혹은 鄭秋巒과의 강습토론, 혹은 奇高峰과의 사칠론변, 게다가 젊은 門弟子와의 共學 共進에 의하여, 그 만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봉은 퇴계보다 2년 늦게 歿하여 46세, 율곡은 14년 늦게 歿하여 49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으니, 兩人이 모두 知天命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고봉과 그를 계승한 율곡의 이론은 모두 정연하고 예리하지만, 우리는 곧 이것에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퇴계의 이론은 항시 그의 독자적인 體認 體察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기에, 갑자기 그 경지에 이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퇴계가 쓴 글을 읽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음을 느끼는 것도 그 體認 體察의 깊이에 의한 것이리라 여겨진다.

(전 두 하 譯)